

5월 둘째주 고3·중3부터 순차적 개학 유력

교육계 등교 개학 공감대 확산 교육부 이번주 시기·방법 논의 일각 "재확산 위험 커" 논란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10명 내외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의 '5월 등교 개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 6일부터 11일 사이에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등교 개학은 여전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개학에도 상당 시간의 준비가 필요했듯이, 등교 개학 전환에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5월 6일

등교 개학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최소한 일주일 전인 이번 주중에는 입장을 발표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도 교육구성원들 상당수는 "이제 어느 정도 등교 개학의 여건이 갖춰졌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는 분위기다. 정부도 지난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완화해 시행하면서 방역관리의 통제력이 점차 회복 추세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등교 개학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있다. 장기간의 휴업과 원격수업으로 교사와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피로도 누적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등교 개학의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등교 개학의 선제 조건인 집단감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론과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가 이번 문제를 푸는 관건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 역시 등교 개학 자체에는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생활방역 기준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7일 "개학의 방법과 순차적 개학의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있다"며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고3과 중3 학생을 우선으로 고려해 등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부제나 등교 시간의 조정방안도 같이 고려해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교육전문가들은 "등교 방식을 단계별 해야 하는 것이 이제는 상식이

라고 본다"라며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자릿수 단위인 것이 반가운 일이지만 한데 몇 명이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진자의 감염원을 알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며 "조심스럽게나마 학교에서 학생을 받으려면 지금 보다 더 높은 안전단계가 아니고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주 중으로 교원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뒤 전국 시도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중대본과 생활 방역체제 전환 여부 등과 연계해 늦어도 5월 초에는 개학 시기와 방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야외활동 때 진드기 조심하세요”

강원도서 올 첫 환자 발생 광주시 감염병 주의 당부

광주시는 최근 강원도 원주에서 올해 첫번째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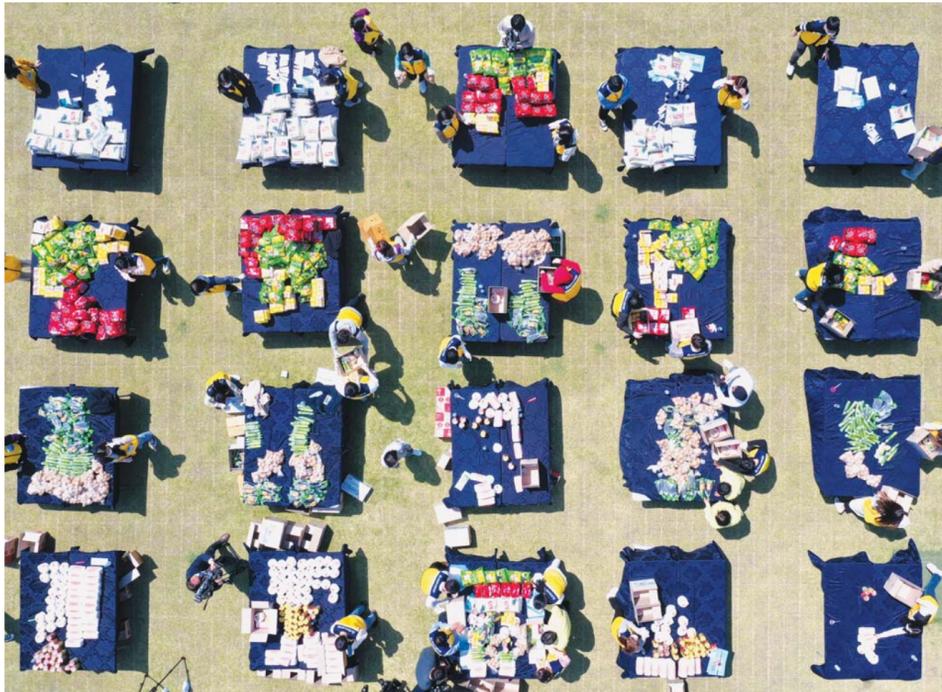
주로 4월-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SFTS는 잠복기인 4-15일 후부터 38도 이상의 고열, 구토,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 등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이나 신경학적 이상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1089명의 SFTS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215명이 사망했다. 광주에서도 지난 2016년 1명, 2017년 2명, 2019년 1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1명(2016년 발생자)

이 사망했다. SFTS와 같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때 긴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고,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위에 눕지 않도록 하고 진드기 기피제 사용도 도움이 된다.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모두 진드기 감염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만큼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5월부터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광은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진드기에 물린 경우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면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사립유치원 10곳 중 3곳 외국어·외래어 명칭 사용 시민단체 교육당국 대책 촉구

광주 사립유치원 10곳 중 3곳이 명칭을 외국어·외래어 등을 사용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181곳의 사립유치원 명칭을 확인한 결과, 59곳(32.5%)이 아파트 이름이나 유아교구회사, 합성어 등 외국어 또는 외래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슈에르', '미래클', '아이립' 등 국적불명의 명칭을 사용중인 곳도 여러 곳에 달했다. 영어교육이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 있지만 익숙치 않은 명칭으로 인해 유아들에게 언어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를 정하는 의견수렴 절차가 없고 교육청이 설립 허가할 때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학벌없는 사회 측은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코로나19 극복 염원 담은 빛고를 희망나눔 꾸러미 27일 오전 광주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빛고를 희망나눔 꾸러미' 제작 행사에서 청년자원봉사자들이 지역 농산물과 생필품 등을 꾸러미 상자에 담고 있다. /최혜민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동구,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고시

용산동 용산모아엘가에듀파크

광주 동구가 용산동에 위치한 '용산모아엘가에듀파크'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고시했다. 용산모아엘가는 지역 제7호 금연아파트로 입주인 의견수렴을 거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했으며, 동구는 지난 23일 금연아파트 현판을 전달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절반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아 복도·계단·엘레베이터·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신청할 수 있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인 주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 부착, 지하주차장 및 현관 입구에 금연구역 안내스티커 부착 등 충분한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6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는 2018년 계림동 두산위브아파트와 윤림동 라인2아파트를, 2019년에는 산수동 라도스하임아파트, 지산동 삼성아파트, 산수동 무등산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2차아파트 등 6개소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서부교육청 급식기구 교체 통합구매로 예산 절감

광주 서부교육청이 학교 노후 급식기구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구매 제도를 이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괄 구매가 가능한 오븐과 향상의 일환으로 지난해 학교 노후 급식기구 구매 때 통합구매 제도를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학교별 여건과 급식실 특성을 반영해 자율구매를 허용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했다. 오븐과 식기세척기의 경우 통합구매 선결조건인 표준규격안을 통합구매협의체를 거쳐 마련했다. 또 통합구매를 추진하면서 복잡하고 난해한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업무담당자가 이해하기 쉽게 절차 등을 체계화해 매뉴얼로 작성했다. 이를 통해 일괄 구매가 가능한 오븐과 식기세척기의 경우 학교 수요조사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으로 계약 체결 후 학교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영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통합구매 제도를 토대로 적극적인 학교 현장 지원과 급식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맞춤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신청하세요

광주 서구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는 20대 이상 서구 주민 또는 직장인 중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위험군 200명이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오는 5월 12일부터 3주간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24주) 서비스가 지

원된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 대상자에게는 손목에 차는 활동량계(스마트밴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활동량계를 통해 걸을 수, 칼로리 소모량, 중강도운동량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앱

(APP)에 자신의 식사기록을 입력해 하루 목표 칼로리량 확인도 가능하다. 또 보건소에서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팀을 구성해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별 건강 및 활동상태, 영양섭취 등을 평가하고 맞춤형 건강·영양·운동 영역별 상담과 교육 등 집중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축 광주일보 창사 6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더 큰 군산을 위한 행복한 동행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희망을 담은 큰 그릇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참 뜻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군산시의회**